

# 담양군,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분양 '탄력'

96필지 중 62필지 분양…분양률 63% 달성

생태도시 담양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며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담양군은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지난 2018년 분양이 시작된 이후 96필지 337,657㎡ 중 62필지 211,841㎡를 분양해 분양률 63%를 달성했으며, 입주 상담 문의가 계속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에 있는 32개 업체를 비롯해 공사 중인 13개 업체와 최근 입주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가 공장 건축에 착수했으며 8개사와 입주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군은 환경오염이 적은 바이오식품, 자동차부품, 조립금속 등 18개 업종을 유치하고 있으며 토지 분양가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 한도 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 역으로 지정되어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전체면적의 40%가 공공시설 및 녹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군민들의 주거환경과 학교는 물론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쾌적한 균형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저렴한 분양가와 호남·남해·광대·서해안 등 4개 고속도로와 KTX, 무안공항 등 접근성이 좋은 호남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이 높아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체

가 많은 것으로 군은 평가했다.

특히 담양-광주첨단 간 국도가 개통 이후 전남도립대학을 비롯한 광주의 과학기술원과 테크노파크 등이 15분대로 접근성이 확보되며 산학협력이 용이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산업용지가 모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량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나주시, 제1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다시면 '화동마을' 현판식…치매 친화적 마을조성

나주시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인 '치매 안심마을 운영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나주시는 12일 다시면 죽산리 '화동마을'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 이날 유관기관 관계자, 마을주민 30여명과 함께 마을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에 친화적인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영광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우수제안 선정

영광군은 지난 13일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책 발굴을 위해 추진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우수 제안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총 69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중 실무부서 심사와 인구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4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영광=서희권 기자

최우수상에는 신호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을 지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에는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내 어린이 전용 운동기구 설치, 장려상에는 초등학교 아침 급식사업 실시와 인성·진로·자기주도적 학습 분야 지원을 통한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제안이 선정되었다.

장려상에는 신호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을 지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에는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내 어린이 전용 운동기구 설치, 장려상에는 초등학교 아침 급식사업 실시와 인성·진로·자기주도적 학습 분야 지원을 통한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제안이 선정되었다.

영광=서희권 기자

##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2019 여름 꿈사다리학교' 성료



초·중학생 멘티 24명이 참여해 ▲세상에 말을 걸다 ▲멘토에게 길을 묻다 ▲명랑운동회 ▲씨앗콘서트 등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개별 진로설정과 이를 위한 자기개발경로 등을 탐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학생(15, 여)은 "언니, 오빠들과 딱딱한 이론이 아닌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진로 등을 함께 고민하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3개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꿈사다리학교가 지역 학생들의 큰 흥미를 얻고 있다"며, "다가오는 겨울 방학기간에도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우수 국악인 배출 등용문 '화순전국국악대제전' 열린다



화순전국국악대제전(이하 화순국악대전)이 열린다.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국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화순국악대전은 화순군과 (사)화순국악진흥회가 공동주최하고 (사)화순국악진흥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학생부·신인부·일반부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고 판소리·민요·고법·무용·기악 등의 부문에서 전국의 국악 지명생들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첫날인 17일 예선을 거쳐 18일 본선과 결선을 치른다. 18일 오후 4시부터 시상식 식전 행사로 전년도 국무총리상 수상자인 이용우 명인의 특별공

연과 심사위원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국회의장상(일반부 민요대상), 국무총리상(일반부 종합대상), 문체부장관상(일반부 종합 최우수상), 교육부장관상(고등부 종합대상), 전남도지사상(일반부 대상 등)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 기한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처는 (사)화순국악진흥회 이며 우편이나 이메일(hwasun87370226@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국악진흥회(☎ 061-313-7775)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장흥테라피 개발, 학습 및 교육, 홍보, 연구협력 및 기술정보 교류, 기능성 생약 주제를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활용, 생약초 체험 및 연계관광도 함께 추진한다.

장흥민의 특색과 매력을 담은 장흥테라피 연구개발과 장흥테라피 스트양성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 교육매뉴얼 개발, 각 프로그램에 맞는 제품개발, 공간활용계획 도출 등도 함께 진행할 전망이다.

장흥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민간조직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주체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얻게 되었다.

## 장흥군, 생약초 테라피산업 추진 본격화

장흥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전남 천연자원연구센터, 청남진산업고등학교, 장흥지역자활센터,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 (사)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HOPE 이오텍,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안단테산업개발 스파리조트 등 9개사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사업의 성공과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흥 테라피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인적, 물적, 내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화순=박순철 기자

